

2025년도 제5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ACN 소식지 「사랑의 메아리 4호」에서는 ACN의 회년 로마 순례와 더불어 동시에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커다란 기쁨과 특별한 섭리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당시에는 며칠 후 가정의 회년 행사에서 교황 성하를 직접 뵈게 되리라는 건 저로서는 예상도 못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ACN은 여러 언어로 된 「어린이 성경-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1만 부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일반 알현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개별적 인사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른바 ‘바치아마노(Baciamano, 손등 입맞춤)’를 하는 동안, 차분하면서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교황 성하는 마치 그 순간 오롯이 저와 단둘이 있는 듯이 온전히 제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제가 ACN의 활동에 대해 보고한 뒤, 새로 나온 「ACN 어린이 성경」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에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발행한 <유캣(YOUCAT)-영원한 사랑>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이나 결혼한 부부를 위한 이 특별한 교리 문답서는 수년간의 국제적, 상호문화적 교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노고와 열정적인 헌신의 산물입니다. 이 책은 커다란 불확실성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이 시대에 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을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언어로 제시합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해 확실하면서도 유용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젊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레오 교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제 앞뒤 줄에도 질문과 관심사들을 전달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함께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보자며 미소 띤 얼굴로 제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일이 뜻밖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9일 후에 우리는 「ACN 어린이 성경」 최신판을 위해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쓴 서문을 받아 들게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성하를 개인적으로 뵈고, 지금까지 그분께서 들려주신 강론과 연설을 읽고 나니 그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청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주 신자들에게 했던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레오 교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보호 아래, 레오 교황께서 어려운 시기에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잘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 하나 되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 OP



더 빠르고 안전한 사목을 위해

나이지리아 중부의 판크신교구는 구릉 지역에 있어서 특히 우기에는 비포장도로 대부분이 통행하기 어렵습니다.

판크신교구에 속한 본당마다 평균 160곳이 넘는 마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사제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외딴 길은 아주 위험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이 지역에서는 납치되거나 공격당하는 사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발 고쿰 주교는 본당 다섯 곳에 튼튼한 중고차 다섯 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도움 덕분에 차량 마련에 필요한 73,500,000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런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차량을 받은 신부님들을 통해 복음 전파 활동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별이자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관대한 우리 후원자들에게 넉넉히 보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칼럼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찬가입니다. 8월이면 전 세계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로마에서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희망의 회년을 기념하며 신앙을 기리는 자리를 갖습니다. 레오 교황은 젊은이들을 향해 ‘생명과 에너지, 감성과 아이디어로 충만한 화산’이라고 칭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ACN을 후원하는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장을 봐주거나, 약간 거리감을 둔 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CN의 후원을 받는 국가들의 젊은이들은 온갖 지역적 어려움과 반그리스도적인 박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교리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젊은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신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하느님을 찾으면서, 또한 다른 이들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유럽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들에도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프랑스에서 세례받은 성인 10,384명 중의 36%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망의 본보기이자 원천인지요!

우리는 주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야 하며, 특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라틴 아메리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사이신 곳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복음에 나오는 주님 말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놀라운 증언들이 전해옵니다.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교구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성모 피난처 수녀회’는 현재 25명의 젊은 어머니들과 아기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론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들이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이곳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노에미 수도원장이 씩씩하게 말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이 소녀들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 소녀들은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질서정연한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지요.” 수도원장은 덧붙여 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 소녀들은 자신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원장의 젊은 협조자인 루피타 수녀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안에 어떻게 작용하시는지가 보여요. 시간이 지나 우리를 떠날 때가 되면, 소녀들은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걸 믿기 시작하게 되지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은 이 소녀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소녀들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찾고 성사를 받기를 원하는 소녀들도 많습니다. 14살에 아이를 출산한 마리셀라(17세)가 말합니다. “정말 많은

미소 짓는 법을 배운 젊은 어머니와 아기



멕시코의 젊은 어머니들 - 프란치스코회 여성 수도자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고, 성장합니다.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사랑과 용서를 믿고,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여성 수도자들은 매일 하루 종일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들이 밤낮없이 언제라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 수 있고, 또 미사가 거행될 수 있는 경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81,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사이십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폭력이 심각한 나라에 속하는 **에콰도르**에서도 전과자들의 회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인구 약 300만 명의 항구 도시 과야킬에서는 폭력 발생률이 특히 높습니다. 주로 15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사제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교정 사목 지원팀이 과야킬대교구 지역의 교도소 10곳을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방문을 위해 최대 120km를 이동해야 하지요. 현재 교도소 방문에는 낡고 오래된 차량, 또는 택시나 버스가 이용됩니다. 특히 버스 이동이 위험한데, 교도소 방문객들이 이미 일곱 차례나 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구에 새 차량 마련을 위해 36,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혼 구조를 위한 구급차’를 장만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에콰도르 - 교도소 내의 미사



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2014년 여름, **이라크**의 니네베 평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داع시(IS)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피난을 가거나 추방되었고, 살해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천 년 동안 신앙이 번창했던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는 사라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라크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빌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테러범들에 의해 참수당했다가 복원된 카람레스의 성모상을 축성했습니다. 이 성모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다시 카람레스로 돌아왔습니다. داع시 무장세력의 퇴각 이후,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ACN은 카람레스를 포함한 니네베 평원에서 황폐해진 그리스도교 지역의 재건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가정들은 희망을 품으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전망합니다. 카람레스에서 다시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이 희망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이들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120명 내지 13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돈 보스코 청소년’과 ‘돈 보스코의 친구들’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돈 보스코의 영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들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



1. 레바논의 청소년 캠프
2. 이라크 카람레스의 ‘돈 보스코의 친구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휴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당 사제인 아다이 바바카 신부의 말입니다.

사제들과 몇몇 수도자들의 인도 아래, 청소년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인들의 삶에 대해 배우고, 때로는 오래된 수도원과 성지들을 방문합니다. 놀이와 스포츠 행사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교회의 빛나는 미래이자, 믿음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상의 전쟁에도 영향받지 않는 강하고 굳건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다이 바바카 신부가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때로 가족들까지 다시 교회로 데려옵니다. “가족들은 자녀의 눈에서 용기와 열정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혼이 치유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사업에 8,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업이 영적, 종교적 성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또한 ACN은 해마다 교회 주관 방학 캠프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캠프를 지원하지만, 그 외 많은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여름 캠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을 더 깊게 해주며, 또한 또래 친구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종종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마음을 다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필요한 경우 영적, 심리적 지원도 받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님과 우정, 그리고 서로 간의 우정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휴가’





ACN 신간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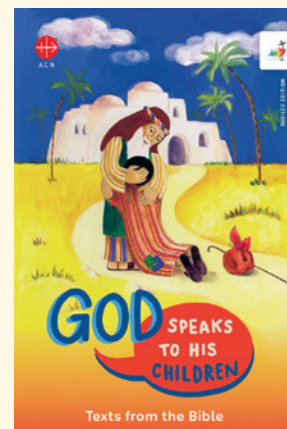
가톨릭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데다,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교회가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려면 좋은 교리 문답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교리서인 유캣(YOUCAT)은 거의 15년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만한 방식으로 가톨릭 신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60개 언어로 번역된 이 교리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모든 젊은이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특히 중요한 도전에 처해 있으며, 많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본보기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캣(YOUCAT) 시리즈에서 결혼 지침에 초점을 맞춘 <유캣(YOUCAT)-영원한 사랑>이 새로이 출간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을 앞두고 이 책의 서문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사랑을 믿고 하느님을 믿으며, 또한 평생 지속되는 사랑의 모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소식지 첫 페이지에서 소개되었듯이, 최근에 ACN의 안톤 레서 지도 신부로부터 이 책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들은 교황 레오 14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정의 희년을 기념하는 강론에서 교황은 결혼을 ‘남녀 간의 참된 사랑의 척도이며, 이는 온전하고 충실하며 열매 맺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시복과 시성된 부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며, 통합과 화해의 힘을 통해 관계와

사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결혼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뿌려져야 하지요. 46년 전에 처음 출간되어 현재 194개 언어로 번역된 ACN의 「어린이 성경-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5천 1백만 부 이상 배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책자 디자인이 현대화되고, 교리 교육에 관한 여러 제안도 추가되었지만, 인기 있는 삽화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ACN 어린이 성경」 첫 1만 부는 가정의 희년을 맞아 5월 31일에 ACN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신간 어린이 성경은 한국어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소식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CN은 해마다 전 세계에 어린이 성경을 포함, 수십만 권의 교리 문답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하느님께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교리 문답서를 구매하여 주변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 라테란 대성당 앞에서 새 「ACN 어린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어린이들



1. 카메룬의 장 티에리 무덤 앞에 선 젊은 가르멜 수도자들
2. 여러분이 후원하는 5,3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신학생 중 일부

카메룬 바멘다 출신의 장 티에리 에보고(1982-2006)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사제가 되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제 서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모범을 따라 사제의 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프리카에 ‘사제 성소의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티에리는 13세 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부드러운 사랑과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21세에는 수도 야운데 근처의 은코아방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다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2005년, 장 티에리는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이송되었지만, 암은 이미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한 여성 의사가 외쳤어요.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장 티에리의 유일한 걱정은 과연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는지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기 위해 낫고 싶을 뿐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그는 특별 허락을 받아 병실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인 2006년 1월 5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사제 서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이탈리아 체류 허가가 만료되는 바람에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6일,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던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 티에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어머니,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주님께 바치셨는지 기억하세요. 친구를 방문하면서 새끼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저는 사제가 되기 위해 낫고 싶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수도 서약에 서명하는 장 티에리 죽음을 앞둔 장 티에리와 그의 어머니

염소를 선물로 주었다면, 나중에 그 친구가 새끼 염소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친구가 새끼 염소를 그냥 키웠을 수도 있고, 잡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가 하느님께 바치신 새끼 염소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바치신 새끼 염소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하느님께 물어서는 안 됩니다.”

장 티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수천 명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깊은 감명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있으며, 그의 시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티에리는 17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행복을 확신합니다.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카메룬 출신의 이 젊은이가 비록 사제는 되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빛나는 삶의 모범은 교회에 선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성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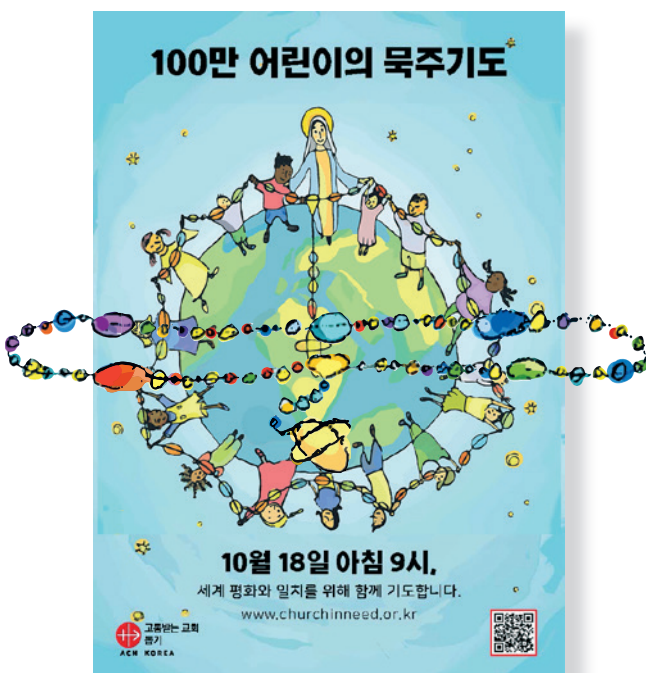
2025년 7월 10일, ACN 한국지부 설립 10주년 감사미사 봉헌

"박해받는 이들은 믿음으로 시험받고,
우리는 사랑으로 시험받습니다."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무사히 ACN 한국지부 설립 10주년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희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5년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기도문은
다음 소식지에 동봉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초 발송 예정)



ACN 설립 10주년 감사미사 다시보기

